

◆ 이영대 박사의 'Job' ◆ [제3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교육

최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조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 업본부 기반산업팀에 의하여 발표 되었다. 조사목적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신입직원 능력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산 업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도모 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주요 기업 대상(500개)으로 조사표를 보내어 2008년 5월 21일~6월 11일 중 회수가 된 159개(회수율 31.9%)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 되었다.

2003년도 전경련 조사시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글로벌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2008년 도에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도 조사에서는 바람직한 직장인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전문지식과 프로덕션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조직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국제화된 인재'였다.

기업들은 인재가 꼭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 '도전정신과 성취의식'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조사 대상기업중 38개 기업들이 '도전정신과 성취의식'을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1순위 자질로 선택하였으며, 2순위는 18개, 3순위는 27개였다.

2003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2008년에는 도전과 창의력이 독립 영역으로 선정되어 강조가 되었다는 것일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때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문성이 있는가? 조직에서 협력을 잘하느냐?" "직업에 대하여 올바른 윤리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도전하고 창의력이 있는가?"가 관련이다.

다음으로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선택하였는데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은 37개이며, 2순위 20개, 3순위 13개였다.

이분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기업들은 취업준비자(대학생)들이 가장 미흡한 부분은 '협동심'이며,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현실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42개 기업들은 취업준비자의 미흡한 자질 1순위로 협동심을 들었으며, 39개 기업은 2순위로, 27개 기업은 3순위로 취업준비자들의 협동심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이 가장 미흡한 자질 1순위 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30개와 15개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협동심'이,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현실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42개 기업들은 취업준비자의 미흡한 자질 1순위로 협동심을 들었으며, 39개 기업은 2순위로, 27개 기업은 3순위로 취업준비자들의 협동심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기업의 인재상 조사 결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핵심역량은 창조성과 도전정신, 전문성, 글로벌 변화, 협동성 등이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도전성·창의성·전문성을 가지고 조직내에서 조화롭게 일할 인재상을 원하는 것으로 밝혔다.

과연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이들을 제대로 양성하는가? 접수하기 위한 외국어 공부야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를 강조하여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실력을 쌓게 하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조직생활을 잘 하도록 학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태도, 가치관, 윤리를 길러주어야 하며, 도전하고 창의력으로 자제를 학교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하겠다.

주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조성, 도전은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인재이며 △전문성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기계발에도 노력하는 인재이며 △글로벌 변화는 글로벌 시대 적합한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이며, △협력, 윤리는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며 협력적인 인재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배움이 있는 세상 ♣

'자기고백적 활동'...미술, 심리치료에 큰 효과

요즘 우리는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 이코페스 연쇄살인사건, 유명 연예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소식 등 심리적으로 벌어진 사회문제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진 실되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우울'과 '외로움' 같은 내면의 괴로움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 반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의 유형들입니다. 그러한 내면의 괴로움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아 픈 마음을 함께 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심 리치료사'입니다.

30대 초반의 A씨는 학교 앞에 온 몸을 감싸고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 소녀를 그 렸고, 학교 주변을 가시돋친 울타리로 둘러싸 학교와 소녀를 분리하듯 표현했습 니다. A씨는 과거 학교에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고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A씨에게는 자신

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를 원망하지 않고 미안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이 무엇이 미안 하냐고 묻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미안하고 자신을 '괴물'이라 말했습니다.

위로해주었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어려웠던 상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 갈등을 해소할 시간 이 더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말한 후 짧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왜 그렇게 저를 혼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니 활짝 웃으며 "이제 속이 좀 후련 하네요."라고 했습니다.

임시위주 교육, 학생 '정신건강' 악영향 미칠까 걱정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만성정신질환 으로 병원치료를 마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 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좋게 귀를 세우고 대답을 몇 번이고 반복 해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더디고, 많은 인쇄 심을 필요로 합니다.

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고 때문에 정신분열 증세가 선천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변의 냉담한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현재 저와 함께 하는 치료를 하는 동시에 컴퓨터를 배우며 사회로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를 원망하지 않고 미안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이 무엇이 미안 하냐고 묻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미안하고 자신을 '괴물'이라 말했습니다.

위의 분들처럼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지체를 동반 한 분열증 환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40대 중반의 D씨가 이런 경우인데, 그는 책상 위에 빨간 손을 그리고 밴 드를 붙여 놓았습니다.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아프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30대 중반의 B씨는 밝게 웃고 있는 한 여자와 병원을 겹치지 않, 뒤로 그렸습니다. 병원을 그리면서는 잠시 그리는 것을 멈추기도 했지만, 자신이 입원했던 병실을 그릴 때에는 몇 층이 있는 지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B씨는 그 때를 생각하는 것이 함께 겨우지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가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듯 보였으며,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림 속 여자도 이해,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심심

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내적 모습'과 거칠고 난폭한 자신의 '외적 모습'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간 사랑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를 쏟 아내던 그가 최근에는 그녀에게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 리주시간에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를 올려 붙이며 다짐하듯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초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 하지만, 40세가 되면 멋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고 싶다. 변하고 싶다."

40대 중반의 C씨는 아버지가 카타란 몽 동이를 들고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과거 그러한 가정환경이 자신의 병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였을 것이라고

<다음호에 계속>



이순화 부천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강사

학교가 공원되고 아파트담장이 숲길되고...

서울시, 열린 공간 조성 활기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의 푸른 컴퓨터 변모한 학교

가만히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 보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지대가 의외로 많아졌다. 변화의 선두주자에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 담장이 벽돌이 아닌 나무와 꽃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학교 문턱이 높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집 안뜰처럼 자주 이용해요."

서대문구 북성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주부 서민아(38세) 씨의 말은 '열린학교'의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열린학교'란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그 속의 폐쇄공간이던 교정

을 녹색 컴퓨터 만드는 도심 녹지 사업의 명칭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근초등학교와 개포초등학교에선 산수유, 산뽕나무, 철쭉 등 다양한 꽃나무를 볼 수 있게 됐고, 정릉초등학교와 인수중학교에서는 생태연못을 만들어 창포, 부들, 수련도 심었다. 중앙중학교와 송실고등학교에는 학교 운동장 외곽에 녹지대를 만들어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했다.

물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대환영했다. 추가로 신청한 학교들까지 공사를 마치는 2010년이면 서울내 학교 1천 312개 중 '열린학교'의 숫자는 총 838개나 된다.

대학 역시 담장을 개방해 녹지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 중 어린이대공원과 마주 보고 있는 세종대학교는 성공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대학측은 과감하게 340m의 담장을 들어냈고 그 자리에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 2천여 그루를 심었다. 이미 건너편 어린이대공원 담장이 개방된 데다 능동로 '디자인 거리' 프로젝트까지 진행된 덕에 세종대 앞의 보도 폭은 시원하게 넓혀졌다.

주택가에 인접한 흥릉수련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와 정자를 조성한 흥릉동의 서울간호대학도 이웃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현재 담장을 허물고 녹지사업을 진행중인 연세대학교까지 포함하면, 서울내 총 21개 대학교는 7천 412m의 담장을 허물어 총 4

만 9천 482㎡의 녹지를 만들어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파트열린녹지+그린웨이= 그린 커뮤니티

학교에 이어 아파트도 담장 허물기 대열에 합류했다. 물론 재산권이 관련된 사안이라 초창기에는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설 명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반감과 우려를 표시했던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후 넓어진 느낌의 아파트 입구를 보면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

보행자들도 폐쇄적인 담으로 좁고 불편하던 보행로가 숲길로 바뀌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됐다. 그리고, 아파트촌에 조심스레 '동네'라는 개념도 자리하게 되었다.

'아파트열린녹지' 사업의 성과는 생각 이상이었다. 이렇게 새로

조성된 녹지의 장점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담장구멍에는 '아파트열린녹지'의 사업대상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총 35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요즘은 그동안 개별로 추진되던 '아파트열린녹지', '열린학교' 사업에 가하면 녹지량을 확보하는 '그린웨이' 사업까지 결합돼 한 지역에서 3개의 사업이 동시에 계획되고 추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가령 320m 구간의 아파트 담이 헐리고 그 자리에 보행로가 자리를 잡으면 기존에 있던 보도와 아파트 쪽 양쪽으로 풍성한 녹지를 만들어 숲길을 연상시키는 보행로를 조성하는 식이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다음호에 계속>

Advertisement for Hanjin Shipping.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hipping container with 'HANJIN' written on it. Text includes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컨테이너' and '한진해운의 원색주의와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앞선 맞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Logo for CyberLogitron is also present.